

첨부 - 동향

[한국블록체인협회 - 2021년 3월]

# 「디지털자산」 동향 보고서

2021. 4. 1

## 목 차

1. 국내·외 규모 .....	1
2. 국내·외 국가별 CBDC 동향 .....	2
3. 국내·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	9
4. 국내·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동향 .....	16

본 보고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時事報道)를 기초'로 하여  
정리한 '참고용' 자료임을 밝힙니다.

# 1 국내 · 외 규모

## □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규모 관련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총 445조221억 원으로 집계(2020년 거래대금 : 356조 2056억 원)(2021. 3. 4)

\* 출처 : [단독]코인 대박 꿈꾸는 2030... 가상화폐 거래액, 코스피 40% 넘어(동아일보 김동혁, 김지현 3/5),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304/105729584/1>

- ▶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일평균 거래금액은 7조9468억원, 2018년(2조5654억 원)에 비해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규모, 2월 유가증권 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19조954억 원)의 42% 수준
- ▶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4대 거래소에 가입한 회원 가운데 한 번 이상 거래한 투자자는 159만2157명, 2020년 연간 투자자 수(120만 834명)를 두 달도 안 돼 능가

## □ 가상자산 앱 사용자 월 300만 명 돌파

-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는 자사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를 통해 '가상화폐 앱 시장 분석' 리포트를 발표, 가상자산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가 3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남<분석 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7일까지, 일평균 4000만 모바일 기기의 20억 건 데이터(안드로이드, iOS 통합 데이터 기준)를 AI 알고리즘에 기반해 분석>

\* 출처 : 가상자산 앱 사용자 월 300만 명 돌파...2030세대 대거 유입(이투데이 박소은 3/25),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7982>

- ▶ 가상화폐 앱 사용자 수는 최근 5개월간 꾸준히 증가, 2월 가상화폐 업종 앱 월 사용자 수(MAU)는 312만3206명으로 2020년 10월(107만 8762명) 대비 189% 증가
- ▶ 2030세대가 모바일 가상화폐 시장에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가상화폐 앱 사용자 중 2030 비중은 2020년 10월 52.7%에서 2021년 2월 59%까지 확대)

## □ 가상자산 산업 M&A 전년 대비 2배 증가

- 코인텔레그래프는 다국적 회계감사기업인 PwC의 보고서를 인용, 2020년 가상자산 산업 M&A가 총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로 2019년(4억8100만 달러, 약 5500억원)의 2배를 기록했다고 보도, M&A 시장의 가상자산 기업 평균 거래 가치는 5300만달러(약 600억원)로 2019년의 1900만달러(약 215억원)보다 2.7배 증가, 지역별로는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EMEA)에서 거래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고, 아메리카 지역은 3배 증가

\* 출처 : M&A 시장서 가상자산기업 몸값 2.7배 늘어(파이낸셜뉴스 이설영 3/30),  
<https://www.fnnews.com/news/202103300930484359>

## 2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 □ 국 외

#### ○ 국제결제은행(BIS)

- 한국은행은 '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통해 CBDC가 국가간 지급 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이 CBDC의 국가간 지급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를 장기 검토 과제로 채택했다고 밝힘(2021. 3. 2)

\* 출처 : '디지털화폐' 국제화 신호탄 쏘나...BIS "국가간 지급서비스에 활용 방안 검토"(머니투데이방송 박지웅 3/2),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1030210334859699](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1030210334859699)

-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비한 감시·감독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지배구조 요건 정립, 자금세탁,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법적·운영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국가간 규제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2021. 3. 2)

\* 출처 : 국제기구, 스테이블코인·CBDC 대응 방향 논의한다(블록미디어 강주현 3/3),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1105>

- 국제결제은행(BIS)은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은행(CBDC)간 상호 운용을 통해 비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개선할 있다고 말함(2021. 3. 19)

\* 출처 : 국제결제은행 "다중 CBDC방식, 국경간 결제 미래 바꾼다"...세가지 모델 제시(토큰포스트 하이레 3/22), <https://www.tokenpost.kr/article-56282>

\*\* '다중 CBDC협약과 국경간 결제의 미래(Multi-CBDC arrangements and the future of crossborder payments)는 단일 프레임워크에 여러 통화를 포괄하는 다중 CBDC 시스템(multi-CBDC)이 상호 운영성을 높이고 국경 간 결제가 가진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

▶ BIS는 국경간 결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CBDC를 상호 운용하는 다중 CBDC(mCBDC)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봄, 가능한 CBDC 모델로 호환가능한(compatible) CBDC 시스템, 상호연결(interlinked) CBDC, mCBDC를 위한 단일 시스템 세가지 제시

- ① 호환가능한(compatible) CBDC 시스템 : 메시지 형식, 데이터 요구 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일반적인 기술 표준을 사용하고 법률, 규제, 감독 표준을 조율해 상호 호환성을 향상 시키는 방식(공동 표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조율 단계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존재, 기존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뚜렷하지 않음)
- ② 상호연결(interlinked) CBDC 시스템 : 각국 CBDC시스템을 연결하는 것, 공유 기술 인터페이스나 공동 청산 매커니즘(두가지 형태가 가능), 수압과 유속이 다른 수도관을 연결하는 것처럼 복잡한 작업 가능
- ③ mCBDC 시스템 : 여러 CBDC를 단일 규정을 가진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동되게 하는 방식, 해당 방식은 태국, 홍콩의 CBDC연구 인타논(Inthanon)과 라이언록(Lion Rock)에서 사용됐으며 BIS혁신연구소, 중구그 UAE의 중앙은행으로 확대

- 중국이 미국 보다 먼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출시하더라도 디지털이라는 특성만으로 미국 달러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어거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총재가 전망(2021. 3. 31)

\* 출처 : [전문가 코멘트] 디지털 위안, 국제 준비통화 경쟁에서 첫번째 CBDC 이점 누리기 어려울 것 - BIS 총재(블록미디어 장도선 4/1),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3796>

### o 국제통화기금(IMF)

-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용 사라 저우 대표는 마셜제도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는 속해있는 섬들의 재정 안정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2021. 3. 24)

\* 출처 : IMF “마셜제도, 디지털 화폐 발행하면 경제적 위협 초래될 것“...왜?(블록체인프레스 선소미 3/25), <https://blockinpress.com/archives/43315>

- ▶ 용 사라 저우 대표는 마셜제도의 CBDC인 SOV 발행은 마셜제도와 미국 은행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테러 위협과 자금 조달, 외부 원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함
- ▶ 또한 마셜제도는 법적, 규제적, 제도적 체계가 아직 SOV 발행을 수용하거나 리스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으며 잠재적 발행 비용이 예상 이익을 능가할 것이라고 강조

## ○ 유럽중앙은행(ECB)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 중앙은행(ECB) 총재는 디지털유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전체(디지털유로 개발 및 운용과정) 프로세스에 대해 현실적으로 살펴볼 계획이고 4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 이라고 밝힘(2021. 3. 31)
- \* 출처 : [글로벌포스트] 골드만삭스도 비트코인 투자상품 출시한다(파이낸셜뉴스 이구순 4/1), <https://www.fnnews.com/news/202104010651286915>
- \*\* 유럽 중앙은행(ECB)은 디지털유로 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8000여명의 금융·법률·기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음

## ○ CPA호주

- CPA 호주(호주공인중계사회)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플랫폼으로 리플이 활용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2021. 3. 8)
- \* 출처 : CPA 호주 “리플, 중앙화되어있어 CBDC 플랫폼 활용 가능”(블록미디어 강현주 3/9),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1621>
- ▶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CPA 호주는 CBDC 발행 플랫폼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을 비교하고 보고서에서는 세계 각 법원이 암호화폐에 대해 판결한 사례를 소개
- (판결 사례) 보고서는 디지털 및 암호화폐의 정당성이 법적·경제적 인정 받고 있음을 말함
- ① (프랑스 낭테르 상업법원) 비트코인에 대해서 대체 가능한 무형자산이며 법정화폐와 같다고 정의(2020년)
- ② (영국 고등법원)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인정(2020년 1월)
- ③ (호주 NSW주 지방법원) 암호화폐를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2020년 2월)

- ▶ AMB크립토는 리플은 중앙집중화되어 있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달리 특정 네트워크 노드만이 거래를 검증할 수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CBDC 플랫폼으로써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함

## ○ 미국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s)는 현금과의 공존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다시 밝혔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주최한 결제에 관한 가상 컨퍼런스에서 국제결제 은행(BIS)과 G7(서방선진 7개국) 중앙은행들이 작성한 CBDC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 언급)(2021. 3. 18)
  - \* 출처 : CBDC는 현금과 공존 필요 - 파월 연준 의장 기존 입장 재확인(블록미디어 장도선 3/19),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2636>
- ▶ 파월은 보고서에서 강조된 3가지 핵심 원칙 가운데 하나는 CBDC가 현금 및 유통성이 있고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 내의 다른 종류 화폐들과 공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글로벌 결제 시스템 개선은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으로부터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현재 진행중인 국제 결제 은행 주최 연설에서 아직 CBDC 발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달러화 기반의 CBDC는 상당히 큰 잠재력을 지닐 것이라고 말함(2021. 3. 22)
  - \* 출처 : 파월의장 "CBDC 발행 여부, 아직 결정 안돼"(토큰포스트 코인뉴스 3/22), <https://www.tokenpost.kr/article-56295>
-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이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연구원들과 2021년 7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2021. 3. 22)
  - \* 출처 :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MIT와 7월 CBDC 프로토타입 공개 예정(블록미디어 강주현 3/23),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2958>
- ▶ 2020년 8월부터 협업해온 연구진은 디지털 달러 플랫폼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는 중,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제임스 쿤하는 2021년 3분기에 디지털 달러 이체, 저장, 결제 등이 가능한 최소 2개의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 플랫폼을 비롯한 그동안 진행한 연구 성과의 일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함

▶ 블룸버그에 따르면 제임스 쿤하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지에 대해선 미 언급

-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체제엔 프라이버시가 결여돼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CBDC에 관해) 조심스럽게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이 고민의 과정은 아마 신중하고 섬세하며, 아마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함(2021. 3. 23)

\* 출처 : 제롬 파월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보다 프라이버시 강할 것"(코인데스크코리아 David Pan 3/25),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3177>

## ○ 중국

- 글로벌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여러 지방정부의 연례 업무 보고서에 디지털 위안이 포함, 이에 따라 디지털 위안에 대한 논의가 양회\*\*에서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2021. 3. 2)

\* 출처 : 중국 양회, 디지털 위안(CBDC) 논의할 듯(코인데스크코리아 Tanzeel Akhtar 3/3),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99>

\*\*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정협)의 연례회의를 줄여 부르는 말, 2021년 양회는 3월 4일 개최, 전국 5000여명의 정치인이 베이징에 모여 한 해 정부 운영의 우선순위를 결정

- 중국 현지매체인 증권시보는 상하이시의 대형은행에서 디지털 위안화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분증, 현금카드 없이 신청서류만 작성하면 된다고 보도(2021. 3. 29)

\* 출처 : 中, 원하는 사람은 '디지털위안화 지급' 은행서 만든다(머니투데이 김재현 3/2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2915242225128>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무장춘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소장은 국제결제은행(BI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민간 결제 플랫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함, 또한 시장의 98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 알피페이와 위챗페이 두 대형 업체에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디지털화폐(CBDC)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2021. 3. 26)

\* 출처 : 중 결제 시장도 국가가 주도하나...알리페이, 위챗페이 대체 가능성 시사(토큰포스트 하이레 3/29), <https://www.tokenpost.kr/article-56850>

## o 일본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열린 핀테크 컨퍼런스 '핀섬 (FIN/SUM) 2021'에서 "2021년 봄 CBDC 실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힘, 일본은행의 이번 CBDC 실험은 CBDC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2021. 3. 16)
  - \* 출처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CBDC 철저히 준비해야"(지디넷코리아 임유경 3/17), <https://zdnet.co.kr/view/?no=20210317105055>
  - ▶ 구로다 총재는 CBDC 발행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결제 및 결제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 준비가 중요하다며 이번 CBDC 실험 배경에 대해 설명
  - ▶ 2020년 10월, 일본은행은 민간 부분의 혁신을 따라잡기 위해 다른 중앙은행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행도 2021년부터 자체 디지털 화폐 운영에 대한 실험을 2021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더블록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시험 운영을 돕기 위해 민간 기업이 포함된 TF\*\*인 '연락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힘(2021. 3. 27)
  - \* 출처 : 일, 디지털 엔화 개념증명 앞두고 '민간협력 TFT' 구성(토큰포스트 오슬기 3/29), <https://www.tokenpost.kr/article-56840>
  - \*\* TF(연락조정위원회) : 일본 중앙은행 총재, 재무부 관계자, 금융청 관계자를 비롯해 증권사, 시중은행, 결제 및 핀테크 협회 관계자 등 민간 조직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회의는 필요에 의해 개최되고 개념 증명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결정할 시 TF 회원들의 의견이 협의를 통해 반영될 예정
  - ▶ 일본 중앙은행은 2021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CBDC 검증 테스트를 진행하며 TF는 테스트 기간 동안 일본 중앙은행과 민간의 연결 고리가 되는 것이 목적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통화(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발행에 대해 일본은행도 4월부터 실증실험을 시작한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발행 계획은 없다고 말함(2021. 3. 30)
  - \* 출처 : 日구로다 총재 "디지털 엔화? 실험은 하지만 발행계획은 없어" [도쿄리포트](파이낸셜뉴스 조은호 3/30), <https://www.fnnews.com/news/202103301407253528>

## ○ 호주

-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필립 로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정부가 언젠가는 자체 CBDC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2021. 3. 15)

\* 출처 : 아시아 가상자산 정책...호주는 '온탕', 인도는 '냉탕'(디지털투데이 추현우 3/16),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369>

- ▶ 필립 로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CBDC가 기술과 경제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면서 관련 연구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CBDC 발행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

## ○ 인도

- 로이터는 인도 정부가 인도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CBDC를 제외한 민간 가상자산을 일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2021. 3. 15)

\* 출처 : 아시아 가상자산 정책...호주는 '온탕', 인도는 '냉탕'(디지털투데이 추현우 3/16),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369>

- ▶ 인도 정부는 단순한 가상자산 보유와 유통뿐만 아니라 발행과 채굴, 거래까지 가상자산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 중
- ▶ 가상자산 금지 법안이 발효되면 가상자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6개월 안에 해당 자산을 매각해야 하며, 법을 위반할 경우 고액의 벌금을 부과

## □ 국 내

### ○ 한국은행

- 신한은행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시범 테스트 및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힘(2021. 3. 8)

\* 출처 : 신한은행, CBDC 대비 디지털화폐 플랫폼 테스트 진행(코인데스크코리아 박근모 3/8),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52>

- ▶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2021년 하반기 CBDC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

- ▶ 시범 구축한 CBDC 플랫폼은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해 중개기관(은행)에 유통, 은행이 CBDC를 개인에게 지급, 개인 및 가맹점이 CBDC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안에 대한 문답 자료에서 '암호화폐 지속 가능성'에 대해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암호화폐)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하기에는 제약이 많음 (2021. 3. 24)
- \* 출처 : 이주열 한은 총재 "CBDC 나오면 비트코인 수요 줄어"(코인데스크코리아 박근모 3/24),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3157>
-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가 도입되면 특히 지급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

### 3 국내·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 □ 국 외

#####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코인데스크는 FATF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디파이 서비스를 구현하는 탈중앙화거래소(DEX)를 개념을 정의하고 NFT도 언급하면서, 두 산업이 FATF의 규제 대상으로 지목돼 있다고 보도(2021. 3. 21)
- \* 출처 : [글로벌포스트] FATF, 디파이·NFT 규제 움직임(파이낸셜뉴스 이구순 3/22), <https://www.fnnews.com/news/202103220647011891>
- ▶ FATF 보고서는 디파이와 관련 DEX 관련 운영자와 소유자는 이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사업자(VASP)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
- ▶ FATF 보고서가 그간 가상자산을 '대체 가능한 자산'으로만 규정했던 것을 이번에 '변환 및 상호 교환 가능한 자산'으로 대체하면서 NFT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움직임도 보임

##### ○ 국제결제은행(BIS)

-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i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CNBC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환차익을 얻거나 규제 회피 용도로 이용된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규제가 부재하다고 지적(2021. 3. 24)
- \* 출처 : BIS 사무총장 "가상자산, 불법 용도로 사용...규제해야"(파이낸셜뉴스 이설영 3/25), <https://www.fnnews.com/news/202103251403003811>

- ▶ 사무총장은 가상자산이 '투기성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중앙은행과 기존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 가상자산은 화폐처럼 이용되지 않고 있어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 ▶ 더불어 사무총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일부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는 법정화폐에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함

## ○ 미국

-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 관련 질의응답 페이지 5번 질문에서 BTC(비트코인)를 달러로 구매한 납세자에게는 2020년 회계연도 소득신고서 (1040)의 암호화폐 칸에 내용을 기입하는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힘 (2021. 3. 2)
  - \* 출처 : 미국 국세청 "달러로 암호화폐 구매 시 세금 신고 면제"(코인데스크코리아 Danny Nelson 3/4),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17>
  - ▶ 다만 면제 범위는 협소, 특정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거나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에어드롭을 받은 투자자는 '2020년 안에 암호화폐를 받거나 팔거나 전송하거나 교환하거나 아니면 암호화폐로 재정상 이익을 얻은 적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체크 의무 존재
  - ▶ 하드포크로 발생한 암호화폐를 받은 경우도 세금 신고 대상, 이때 소득은 분산원장에 그 거래가 기록되는 시점의 암호화폐 시장가를 기준으로 산정
  - ▶ 여기서 '암호화폐로 얻은 재정상 이익'이라는 문구가 납세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有
- 미국 켄터키주\*\*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 채굴 사업자들이 구입한 전기의 판매세를 제거해줄 하우스 빌 230을 포함한 몇몇 주 세금 우대조치를 승인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2021. 3. 2)
  - \* 출처 : 美켄터키, 암호화폐 채굴자 '세금 감면 혜택' 법안 통과(블록체인투데이 장서연 3/4), <http://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4>
  - \*\* 켄터키주는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 2021년 1월, 켄터키 경제 개발 담당자들은 블록웨어 채굴장에 대해 총 2천8백만 달러의 투자와 함께 파두카에서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열기 위한 세금 인센티브를 승인한 바 있음, 켄터키 상원은 또한 암호화폐 채굴장에 대한 자체 세금 공제 법안인 상원의 법안 255를 추진

- ▶ 보도에 따르면 렉싱턴 헤럴드 리더는 켄터키 주 의원들이 이 새로운 조치에 대해 투표 결과가 19 대 2로 결정했다고 밝힘(법안의 회계 현지 예산이 1년에 100만 달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 입법자들은 이번 면제를 위해 켄터키 주를 찾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현재까지 계산되지 못했다고 말함
-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미국 연방 변호사 협회가 온라인으로 주최한 '45회 연례 세금법 콘퍼런스'에 참가한 국세청이 암호화폐 사기 및 탈세 단속을 위한 '숨은 보물 찾기(Operation Hidden Treasure)'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보도(2021. 3. 6)
  - \* 출처 : 미국 국세청, 암호화폐 탈세 단속 나선다(코인데스크코리아 박근모 3/8),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47>
- 미국 의회 하원의 패트릭 맥 헨리 의원(공화)과 스테판 린치 의원(민주)은 '2021년 혁신 장벽 제거법'을 발의(2021. 3. 8)
  - \* 출처 : 미 하원, 암호화폐 규제 불명확성 해소법 발의(코인데스크코리아 Nikhilesh De 3/10),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81>
  - ▶ 이 법안은 암호화폐의 성격을 구분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내용, 그동안 블록체인 업계는 언제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규정되는지 SEC가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함
  - ▶ '장벽 제거'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 90일 이내 SEC, CFTC 대표로 구성된 실무 그룹이 꾸려질 예정, 실무그룹에는 금융기업, 투자자 보호 단체 등도 참여
- CNBC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최근 암호화폐를 이용, NFT를 매매하게 될 경우 관련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2021. 3. 18)
  - \* 출처 : 미 국세청 "NFT 매매,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한국블록체인뉴스 3/18), <https://www.hk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21>
- 암호화폐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 주 의회가 암호화폐 채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 우대 방안이 담긴 법안 두 개를 통과 시켰고 해당 법안은 덴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의 승인만을 남겨 놓은 상태라고 보도

(3월 3일, 켄터키 주 하원 예산 위원회가 암호화폐 채굴 사업자가 구매한 전기에 대한 판매세 의무를 없애는 '세금 우대법을 통과 시켰다고 코인니스가 보도) (2021. 3. 8)

\* 출처 : 미 켄터키 주 상원, 암호화폐 채굴 사업자 세금 우대법 통과(토큰포스트 코인니스 3/18), <https://www.tokenpost.kr/article-56045>

-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뉴햄프셔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법원의 조셉 디클레리코(Joseph DiClerico) 판사\*\*가 최근 개인이 IRS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얻은 재무기록을 말소하도록 강제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릴 것임을 암시(2021. 3. 24)

\* 출처 : 미 국세청(IRS)도 거래소 통해 투자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정보 확보 전망...연방법원 판사 납세자의 정보 삭제요구 소송 기각 결정·미국판 '특금법' 파동 우려(이코노뉴스 서양희 3/24), <http://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73>

\*\* 디클레리코 판사는 2020년 12월 제출된 기각신청을 승인하면서, IRS는 '연방정부의 세금 정보와 관련한 코인베이스 또는 기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받은 암호화폐 거래 기록을 삭제하라는 요청을 존중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바 있음

\*\*\* 이 결정은 제임스 하퍼라는 미국 시민이 IRS와 그 직원들에 대해 자신에 대한 자료를 삭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

▶ 디클레리코 판사는 하퍼가 요청한 신고 및 금지명령 구제효과, 즉 IRS가 그의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폐기하라는 요구는 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설명

## ○ 중국

- 중국 경제 매체 차이렌서(財聯社)에 따르면 네이멍구자치구의 경제 발전 계획 총괄 부처인 발전계획위원회는 최근 관내 암호화폐 채굴장을 4월 말까지 전면 폐쇄할 계획이라고 공개하면서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감 (2021. 3. 2)

\* 출처 : 비트코인 공급 '비상'...중국, 암호화폐 채굴 광산 폐쇄 추진(한국경제 안정락 3/2),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3028916i>

▶ 네이멍구자치구\*\*는 암호화폐 채굴장 전면 폐쇄가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 2021년 관내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을 1.9% 이내로 통제할 예정

\*\* 네이멍구자치구를 비롯한 중국의 서북방 변방 지역은 전기료가 저렴하고 기후가 서늘해 중국의 대형 가상화폐 채굴 업체들이 몰려 있음, 세계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중국 내 채굴 업체들이 세계 가상화폐 채굴 시장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산

- ▶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 채굴장의 전면 폐쇄를 공개적으로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 네이멍구자치구의 채굴장 폐쇄 조치는 채굴장이 많은 다른 성(省)·자치구로 확대될 가능성 농후

\*\*\* 2017년 9월부터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 발행과 거래 금지에도 한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와 관련된 채굴업까지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음, 2019년부터는 가상화폐 채굴장에 저렴한 산업용 전기 공급을 중단했고, 이제는 채굴장의 완전 퇴출로까지 규제가 강화

## ○ 인도

- 외신들에 따르면, 인도 기업부는 2013년 제정된 기업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암호화폐 관련 거래에 따른 손익, 신고일 현재 보유 통화량, 투자 목적의 암호화폐 거래 기록 등이 포함(2021. 3. 25)

\* 출처 : 인도 기업 4월부터 암호화폐 보유, 거래 내역 공개 의무화(블록미디어 박재형 3/25),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3241>

- 인도 기업은 4월1일부터 보유 중인 암호화폐 수량 등을 공개해야 함, 암호화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던 인도 정부가 일단 금지법 통과를 미룬 모양새, 이에 대해 인도 암호화폐 기업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암호화폐 미디어 디크립트가 보도(2021. 3. 29)

\* 출처 : 암호화폐 금지법 '만지작' 인도 "기업 보유 암호화폐 공개해야"(코인데스크코리아 박상혁 3/29),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06>

## ○ 영국

-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신규 지침이 3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의 2가지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하나의 '암호 매뉴얼'로 통합할 예정이고 암호화폐 대출과 스테이킹으로 얻은 이자에 대한 새로운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전함

\* 출처 : [코인계 글로벌 동향] 英 국세청, 암호화폐 신규 지침 발표 外(코인리더스 박소현 3/29), <https://www.coinreaders.com/10399>

-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HMRC)는 지분 증명(PoS)에 대한 보유 수익을 통합하기 위해 암호화폐 자산 과세 지침을 업데이트했다고 발표(2021. 3. 30)

\* 출처 : 英 국세청 "암호화폐 스테이킹 수익도 세금 내야"(블록체인프레스 선소미 3/31), <https://blockinpress.com/archives/43387>

- ▶ HMRC는 암호화폐 스테이킹은 코인 채굴과 같은 맥락이라며 기존의 암호화폐 채굴 수익과 동일한 과세 지침을 적용시키기로 결정
- ▶ 영국에서는 대표적 PoS 네트워크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이에 따른 이자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지불
-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는 매출액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영국 현지의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금융범죄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 이에 대해 미디어는 영국에서 금융범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 수는 2500곳에서 약 700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2021. 3. 31)
- \* 출처 : [글로벌포스트] 골드만삭스도 비트코인 투자상품 출시한다(파이낸셜뉴스 이구순 4/1), <https://www.fnnews.com/news/202104010651286915>

## ○ 태국

- 태국에서 지난 6개월간 암호화폐 거래 계좌 수가 30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통계 수치를 인용해 태국 내 암호화폐 거래 계좌 수가 2020년말 16만 개에서 2월 1일 기준 47만 개로 급증했다고 보도(2021. 3. 7)
- \* 출처 : 태국, 6개월 새 암호화폐 거래 계좌 수 대폭 증가...300% 쑥(블록체인프레스 선소미 3/8), <https://blockinpress.com/archives/43014>
- ▶ 증가한 수치 중 절반은 30세 미만의 투자가가 소유, 2021년 2월 태국 암호화폐 시장 내 거래량은 1009억9000만 바트, 2020년 11월 기준 184억4000만 바트에 비해 447.18% 증가

## ○ 아일랜드

-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신규 요건'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기업들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 해당 신규 요건은 4월 발효 될 예정(2021. 3. 17)
- \* 출처 : 아일랜드 중앙은행 "암호화폐 기업들,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해야"(블록체인프레스 선소미 3/18), <https://blockinpress.com/archives/43200>

## □ 국 내

-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규정변경예고 한다고 밝힘(2021. 3. 10)
  - \* 출처 :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과태료' 정비(코인데스크코리아 박근모 3/10),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95>
  - ▶ 과태료 규정변경 예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당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 ▶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사업자 의무 등의 이행 의무 존재
  - ▶ 과태료 부과 방침과 함께 감경사유도 신설, 규정변경예고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 조치 위반 시 '고의' 혹은 '과실'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 여부를 고려해 과태료가 부과
  - ▶ 금융위는 과태료가 가상자산사업자 자본금, 매출의 10%를 초과할 경우 자본금 혹은 매출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0%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
-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특금법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방침(대다수 가상자산 거래소가 퇴출되는 과정에서 미처 자산을 정리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대규모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 더불어 특금법이 이미 신고수리 요건을 갖춘 주요 4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담합 조장 가능성도 검토(2021. 3. 11)
  - \* 출처 : 국회, '가상자산 특금법' 과점 조장 여부 검토(팍스넷뉴스 조아라 3/12), <https://paxnetnews.com/articles/71805>
-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 배포(2021. 3. 23),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1. 3. 25)
  - \* 출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보도자료(21. 03. 16),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완료' 보도자료(21. 03. 23)

## 4 국내·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동향

### □ 국내·외 주요 기업 가상자산 투자 및 사업 현황

회사명	투자·사업내역	비고
테슬라	▶ 15억달러 규모 비트코인 구매, 차량 결제에 비트코인 연동 계획	
마이크로스트래티지	▶ 10억달러 이상 비트코인 구매, 비트코인 9만여개 확보	
스퀘어	▶ 1억 7,000만달러 비트코인 구매	
라인	▶ 암호화폐 '링크' 발행, 일본 거래소 비트맥스, 미국 거래소 비트 프론트 운영	
카카오	▶ 암호화폐 지갑 '클립' 출시, 암호화폐 '클레이' 발행	
넥슨	▶ 국내 거래소 코빗 및 유럽거래소 비트스탬프 인수	
다날	▶ 암호화폐 '페이코인' 발행, 편의점·이마트·CGV 등 결제 지원	

\* 출처 : 카카오 코인, 38조 돌파...결제수단도 된 암호화폐(이데일리 이후섭 3/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64966628987912&mediaCodeNo=257>

### □ 국외 기업 및 금융기관

#### ○ 구글 파이낸스

- 구글 파이낸스가 암호화폐의 실시간 가격 등을 볼 수 있는 새로운 탭을 추가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2021. 3. 1)

\* 출처 : 구글 파이낸스 암호화폐 실시간 정보 탭 추가(블록미디어 박재형 3/2),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0941>

- ▶ 실시간 금융 데이터와 분석을 제공하는 구글 파이낸스는 비트코인 (BTC)과 일부 알트코인 자산의 과거 및 실시간 가격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
- ▶ 구글 파이낸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시장 비교' 코너를 선택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의 실시간 가격이 표시, 표시된 디지털 통화를 클릭하면 특정 종목의 과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다른 금융상품과 가격 동향 비교 가능

## ○ 에이치그렉

- 북미지역 30개 지점을 보유한 캐나다 퀘백 기반 중고차 전문업체 에이치그렉(HGreg)은 3월부터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에 가상자산 결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일상업무에서 디지털자산 지불을 수락한 대형 자동차 그룹중 하나가 됨(2021. 3. 2)

\* 출처 : 중고차 업체 '에이치그렉' ... 이달부터 가상자산 결제 지원한다(비트와이드 송시현 3/4), [https://www.bitwide.co.kr/news/news\\_view.php?uData=ZXhITW9kZSUzRHZpZXclMjZpZHZglMQ0MDUy](https://www.bitwide.co.kr/news/news_view.php?uData=ZXhITW9kZSUzRHZpZXclMjZpZHZglMQ0MDUy)

## ○ 라쿠텐

- 일본의 대형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라쿠텐(Rakuten)\*\*이 암호화폐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 자체 결제 앱 라쿠텐페이에 암호화폐를 연동해 엔화로 이체 충전하고 라쿠텐에서 물건 구매 가능(2021. 3. 8)

\* 출처 : 日 전자상거래기업 라쿠텐, 암호화폐 결제 시작(이데일리 이대호 3/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03046628981352&mediaCodeNo=257>

\*\* 라쿠텐은 2018년 8월 암호화폐 거래소 '모두의 비트코인'을 인수해 라쿠텐월렛으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음, 2019년 3월 일본 금융청 승인을 거쳐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이후 라쿠텐월렛의 멤버십 포인트를 암호화폐로 환전하는 서비스도 출시

## ○ 메이투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메이투\*\*는 3월 17일 공개시장에서 2840만달러를 들여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2160만달러 어치의 비트코인도 함께 사들였다고 밝힘(2021. 3. 17)

\* 출처 : '中 대표 뷰티앱' 메이투, 또 가상자산 샀다...총 1000억원 투자(이데일리 이정훈 3/1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15766628984632&mediaCodeNo=257>

\*\* 메이투 : 중국을 대표하는 뷰티 앱 소프트웨어업체

- ▶ 회사 측이 발표한 성명에서 총 9000만달러(원화 약 101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 메이투는 3월 초에도 총 2200만달러 어치의 이더리움 1만5000개와 1790만달러 어치의 비트코인 379.1개 각각 사들였다고 알린 바 있음

## ○ 뉴욕타임스

-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4월부터 구독료 결제에 암호화폐를 도입한다고 발표, 어떤 암호화폐를 받을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이 유력한 것으로 업계는 전망(2021. 3. 30)

\* 출처 : 뉴욕타임스도 혁신...“블록체인 칼럼 팝니다”(한국경제 임현우 3/3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3098051>

- ▶ 뉴욕타임스는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를 활용한 콘텐츠 판매, 3월 25일 경제면에 실린 '블록체인으로 이 칼럼을 구매하세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56만달러(약 6억3000만원)에 판매, 뉴욕타임스는 이 돈을 자선기금으로 기부할 예정
- ▶ AP통신이 3월 초 경매에 부친 'AP는 2020년 대통령 선거를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외계의 시선으로'라는 사진은 18만달러(약 2억원)에 낙찰(2020년 미국 대선 선거인단 지도를 우주에서 바라본 장면을 묘사해 소장 가치를 높인 작품)

## ○페이팔

- 디크립트에 따르면 페이팔 회장 댄 슐만(Dan Schulman)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사업부를 준비 중이라 밝힘(해당 사업부에는 페이팔 핵심 기술 전문가도 포함)(2021. 3. 5)
  - \* 출처 :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페이팔 회장 "암호화폐 사업부 준비...새로운 결제서비스 출시 예정" 外(아주경제 이봄, 정명섭 3/8),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8055934082>
- ▶ 댄 슐만(Dan Schulman)은 현재 페이팔의 암호화폐 비즈니스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지원에 불과하며 구매, 판매, 보유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이를 위해 암호화폐 및 규제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자문 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힘
- ▶ 현재 페이팔은 스마트 컨트랙트 및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을 연구, 결제 및 거래 서비스 개선에 노력 중
- 페이팔이 암호화폐 보안 기술 개발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더블록이 보도(2021. 3. 8)
  - \* 출처 : 페이팔 암호화폐 보안 스타트업 인수 ... 암호화폐 사업 강화 본격화(블록미디어 박재형 3/9),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1552>
- ▶ 보도에 따르면, 페이팔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보안 기술 개발 스타트업 커브(Curv)의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

- 글로벌 결제 및 송금 기업인 페이팔(PayPal)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팔이 제공하는 온라인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비트코인캐시(BCH)까지 총 4종목(2021. 3. 30)

\* 출처 : 페이팔,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개시...비트코인 6만달러 근접(디지털투데이 추현우 3/31),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255>

- ▶ 페이팔 사용자는 미국 전역의 페이팔 가맹 온라인 매장에서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며 결제된 가상자산은 페이팔을 통해 현금(미국 달러)으로 환전돼 온라인 매장에 지급(결제 서비스 대상 지역은 미국에 한정)

## ○ 비씨카드

- 여신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으로 국내에서는 비씨카드가 차이카드를 프로세싱해서 제공, 가상화폐 결제 인프라 구현 추진(2021. 3. 14)

\* 출처 : 카드업계, 가상화폐 사업 뛰어든다(이뉴스투데이 박예진 3/14), <http://www.e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9953>

- ▶ 비씨카드는 글로벌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테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이코퍼레이션과 손을 잡고 차이카드를 출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맹점에는 결제 수수료 인하, 온·오프라인 사용자에게는 상시 할인 혜택을 제공
- ▶ 비씨 글로벌 파트너 결제망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200개국 4000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예정

## ○ 비자카드

- 비자카드는 디지털월렛과 환전거래소와 협력해 고객이 기존 비자 크리덴셜을 활용해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고 7000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2021. 3. 14)

\* 출처 : 카드업계, 가상화폐 사업 뛰어든다(이뉴스투데이 박예진 3/14), <http://www.e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9953>

- ▶ 현재 비자카드는 가상화폐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D)를 공개하고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 중(시범 프로그램 첫 고객은 미국 내 흑인 사회를 위한 ‘퍼스트 블러바드’)

- 글로벌 신용카드사 비자가 미국 달러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USD코인 (USDC)을 자사 결제 네트워크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 사용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변환하지 않고 비자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USDC로 바로 결제할 수 있을 전망 (2021. 3. 29)

\* 출처 : 비자, 달러 연동 가상자산 결제 지원(IT조선 김연지 3/30),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30/2021033000812.html](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30/2021033000812.html)

## o 마스터카드

- 마스터 카드는 2021년 2월, 가상화폐를 일반 통화단위로 환전하지 않고도 자체 지급결제망에서 직접 결제가 가능한 지급결제서비스 구현 계획을 발표(2021. 3. 14)

\* 출처 : 카드업계, 가상화폐 사업 뛰어든다(이뉴스투데이 박예진 3/14),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9953>

▶ 2020년에는 가상화폐 플랫폼 와이렉스와 계좌 연동 직불카드를 출시

## o 백트(Bakkt)

- 세계 최대 거래소그룹 ICE 자회사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백트(Bakkt,대표 개빈 마이클)가 뉴욕주 금융서비스 부서로부터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취득(2021. 3. 12)

\* 출처 : 백트(Bakkt)에 뉴욕주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부여..비트코인 강세(블록체인밸리 주은혜/조혜리 3/12), <http://www.fintech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879#0AXD>

\*\* 비트라이선스는 2015년 팍소스(Paxos)에 처음 부여된 뉴욕 주의 디지털화폐 기업 규제 프로그램으로, 뉴욕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일종의 라이선스

▶ 백트는 2021년 12월 비트코인 옵션을 제도권 거래소 최초로 선보임, 백트는 미국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갖게 됐다고 코인니스가 코인텔레그래프를 인용해 전함

## o 영국 IG 그룹

- 일본 암호자산 업계에 따르면 영국 IG 그룹(47년차 금융기업)의 일본 법인 IG 증권(IG Securities Limited)\*\*이 JVCEA\*\*\*의 2종 회원으로 가입(2021. 3. 9)

\* 출처 : [단독] 영국 IG 그룹, 日 암호자산 시장 '노크'(내외경제TV 정동진 3/9),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755>

- \*\* IG 증권은 2002년에 설립한 이후 일본 증권업 협회, 금융 선물 거래업 협회, 상품 선물 거래 협회 소속으로 금, 원유, 환율, 주식 등의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를 비롯해 FX 거래와 바이너리 거래 등을 취급하는 금융 그룹
- \*\*\* JVCEA의 2종 회원은 현지 영업을 위한 1종 회원의 전 단계로 일본 금융청과 JVCEA의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등급

## ○ 스위스 NPB 은행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스위스 취리히 소재 민간 은행 NPB는 인코어 은행 (InCore Bank AG)과 손잡고 디지털 자산 은행 서비스 출시,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은행 시스템을 통해 일부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2021. 3. 9)
- \* 출처 : 스위스 NPB 은행,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출시(토큰포스트 오실기 3/10), <https://www.tokenpost.kr/article-55287>

## ○ 독일 도이체뱅크(Deutsche Bank)

- 독일 최대 금융기관 도이체뱅크(Deutsche Bank)가 '지불결제의 미래 (The Future of Payments)' 보고서 중 비트코인 편을 공개, 도이체뱅크는 비트코인의 시총이 1조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며, 기관의 진입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2021. 3. 17)
- \* 출처 : 도이체뱅크 "시총 1조달러 넘은 비트코인 무시 못해"(코인데스크코리아 박근모 3/19),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94>
- ▶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을 '팅거벨 효과(Tinkerbelle Effect)\*\*'라고 불렀으며 도이체뱅크는 비트코인 가치가 계속 상승할 수 있지만, 투자자산으로 유동성이 낮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
- \*\* 팅거벨 효과는 동화 피터팬(Peter Pan)에 나오는 요정으로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것에 가치가 있다고 다수가 여기면 결국 가치가 생겨난다는 경제 이론

## ○ 골드만삭스

-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거래 데스크\*\*를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2021. 3. 1)
- \* 출처 :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전담 데스크' 재가동(조선비즈 이용성 3/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00397.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00397.html)
- \*\* 골드만삭스는 앞서 지난 2018년 암호화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한 적 있음

- ▶ 2021년 3월 중순까지 암호화폐 데스크를 설치하고 비트코인 선물 등 관련 상품을 팔 전망, 골드만삭스가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인 만큼 다른 투자은행들도 암호화폐 관련 대응에서 골드만삭스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전망
- 제프 큐리 골드만삭스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는 CNBC와 인터뷰에서 금과 비트코인의 트레이딩 패턴을 보면 서로 다르다며 투자 대상으로 당연히 같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2021. 3. 29)
  - \* 출처 : 골드만삭스 "금, 비트코인 투자대상 공존 가능"(매일경제 박용범 3/30),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3/299343/>
- ▶ 또한 금은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투자 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인플레이션 헤지 투자 자산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비트코인도 경기 방어적인 투자 자산인 성격이 있지만 시장에서 두 자산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
- 골드만삭스 개인자산관리 부문\*\* 디지털자산 글로벌총괄로 내정된 메리 리치(Mary Rich)는 CNBC와 인터뷰를 통해 빠르면 2분기 중 개인 자산관리 고객들을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 출처 : [글로벌포스트] 골드만삭스도 비트코인 투자상품 출시한다(파이낸셜뉴스 이구순 4/1), <https://www.fnnews.com/news/202104010651286915>
  - \*\* 골드만삭스의 개인 자산관리 부문은 2500만달러(약 282억원) 이상 자산을 골드만삭스에 예치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부서

## ○ JP모건

-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는 JP모건의 최신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금보다 2배의 기업이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단기적으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 유입될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보도 (2021. 3. 4)
  - \* 출처 : JP모건 "기업 투자책임자 22%,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가능성 有"(코인리더스 박소현 3/4), <https://www.coinreaders.com/10193>
- ▶ JP모건이 전세계 1500개 기업의 투자책임자 3400여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거래 경험도 없는 기업의 투자책임자 가운데 약 22%가 향후 암호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함(이 중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를 수행해 본 응답자 비율은 11%)

- ▶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으로는 14%가 "기피 대상"이라 답하였으며, 21%는 암호화폐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고 말함, 단 7%만이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답함, 또한 응답자의 98%는 암호화폐 분야에 사기 행위가 존재한다고 답함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JP모건이 공식 웹사이트에 블록체인 관련 채용 공고 34개를 업로드, 대부분의 포지션이 JP모건 블록체인 사업부서 오닉스(Onxy)\*\*의 미국, 인도, 싱가포르 지역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2021. 3. 8)
  - \* 출처 : JP모건, 블록체인 관련 34개 포지션 신규 채용 진행(토큰포스트 코인뉴스 3/8), <https://www.tokenpost.kr/article-55018>
  - \*\* 오닉스는 2020년 10월 JP모건에서 분리, 기존의 JPM코인 개발 및 운영 총괄
- JP모건이 최근 전통 금융기업들이 디지털 금융 부문에서 뒤쳐질 위기에 놓였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데 이어, 복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의 주식에 연동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이 채권 상품의 이름은 'JP모건 암호화폐 익스포저 배스킷'(2021. 3. 9)
  - \* 출처 : JP모건, 암호화폐 관련주 연동 채권 발행한다(코인데스크코리아 Danny Nelson 3/10),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86>
- ▶ 본 상품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20%)와 스퀘어(18%), 라이엇블록체인(15%), 엔비디아(15%)를 비롯한 11개 기업 증권에 투자, 다만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은 아님
- 포브스에 따르면 JP모건이 암호화폐 청산소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JP모건은 암호화폐 청산소\*\*를 통해 장외거래 데스크와 투자자 사이에서 원활한 거래를 보장하고 시장에서 유동성을 창출할 중개자 역할을 맡고자 암호화폐 청산소 진출을 1년 동안 고민한 것으로 알려짐(2021. 3. 16)
  - \* 출처 : JP모건, 암호화폐 청산소 진출 검토(블록미디어 강주현 3/16),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72307>
  - \*\* 청산소 : 선물의 매입자와 매도자 각각의 상대방이 되어 거래이행을 보증하고 거래 종료 시까지 각각의 계약을 관리함으로써 선물거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 청산소의 주요 기능을 요약하면 1) 선물계약의 이행보장 기능, 2) 일일 정산 기능, 3) 청산 기능. 4) 현물 인수도 기능 등이 존재<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매일경제, 매경닷컴)>

- ▶ 포브스는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청산소 구축을 위해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인 레블루션 포퓰리가 게리 찬 JP모건 상무이사를 청산소 자문팀에 합류시켰다고 보도

## ○ 모건스탠리

- CNBC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미국 월가 최초로 '비트코인(BTC) 펀드' 자산관리 고객 대상 비트코인 펀드 3개를 시작한다고 단독 보도(2021. 3. 17)
  - \* 출처 : 모건스탠리, 월가 최초로 '비트코인 펀드' 출시한다(코인데스크코리아 함지현 3/18),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73>
- ▶ 모건스탠리는 우선 자산 200만달러 이상 고객에게만 투자를 허용할 것으로 전해 졌지만 투자회사는 자산 500만달러 이상 보유 필요, 개인 고객과 기업고객 모두 모건스탠리 계좌를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투자 한도는 전체 순자산의 2.5%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짐
- ▶ BTC가 변동성이 높은 만큼, '공격적인 위험 수용 성향(aggressive risk tolerance)'을 지닌 투자자만 허용, 이번 펀드 중 2개는 갤럭시 디지털의 펀드 상품, 나머지 1개는 FS인베스트먼트와 NYDIG의 합작 상품
- ▶ 현재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BTC 직접 투자 상품 미 취급

## ○ 코인베이스

- 미국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이용자 3500만명, 기업 가치 최소 500억달러(약 57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거래소)가 4월 나스닥에 상장
  - \* 출처 : 미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내달 나스닥에 뜬다(조선일보 장형태 3/25),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03/25/CBLQOKVHEZAXTHKLRHTYLRFUOE/](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03/25/CBLQOKVHEZAXTHKLRHTYLRFUOE/)
  - \*\* 에어비앤비 출신 엔지니어인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골드만삭스 출신 프레드 에샘이 2012년 설립,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동시에 250억달러가 넘는 가상화폐를 보유
-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은 2021년 상장하는 신규 테크기업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 ▶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를 최소 5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로 추산
- ▶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크라켄도 2022년 나스닥 상장 추진 중

## □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

### ○ 다날

- 통합결제기업 다날의 블록체인 결제 담당 자회사인 다날핀테크가 자체 페이코인앱\*\*을 통해 이용자가 바코드를 제시, 주요 편의점을 비롯해 식품매장, 영화관 등에서 페이코인(다날핀테크 자체 코인)으로 결제 가능, 또한 페이코인을 SSG머니로 전환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 등 신세계 계열사 전 매장에서 사용도 가능한 서비스 제공 중(2021. 3. 25)

\* 출처 : "페이코인, 금융투자·여행까지 지원할 것"(파이낸셜뉴스 이설영 3/25),  
<https://www.fnnews.com/news/202103251522029264>

\*\* 일반 간편결제 플랫폼이 법정통화 기반의 결제 시스템인데 반해 페이코인 앱은 가상자산인 페이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결제 플랫폼

### ○ 네오위즈 및 카카오게임즈

- 네오위즈는 주주총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 카카오게임즈는 주주총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정관 상 사업목적에 포함(네오위즈 : 2021. 3. 25, 카카오게임즈 : 2021 3. 26)

\* 출처 : 게임업계 잇단 블록체인 진출...규제 불확실성 성패 가른다(뉴스웨이 이어진 3/26),  
<http://m.newsway.co.kr/news/view?tp=1&ud=2021032614194507764>

▶ 네오위즈의 지주사 네오위즈홀딩스는 블록체인 계열사인 네오플라이도 보유, 네오플라이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운영하는 클레이튼의 노드 운영 파트너인 거버넌스 카운슬, 카카오게임즈 역시 카카오 공동체 중 하나이자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

▶ 네오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주주총회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디지털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추가, 향후 클레이튼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할 것이라는 관측

### ○ 서울옥션

- 서울옥션블루와 함께 미술시장 영역 확장을 위한 '미술품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힘, 2021년 3분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

\* 출처 : [블록체인 오딧세이] 블록체인 기술로 진품 보증...NFT 예술품 시대(뉴시스 이진영 3/2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8\\_0001385764](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8_0001385764)

## ○ 위메이드트리

-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전문 계열회사 위메이드트리는 2021년 상반기 내에 블록체인 NFT 거래소를 열고 NFT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고 발표(2021. 3. 8)
- \* 출처 : [블록체인 오딧세이] 블록체인 기술로 진품 보증…NFT 예술품 시대(뉴시스 이진영 3/2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8\\_0001385764](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8_0001385764)

## ○ NH농협카드

-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카드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B사와 가상자산을 연계해 온·오프라인에서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서비스 출시를 막바지 논의 중(2021. 3. 31)
- \* 출처 : 판 바뀐 암호화폐 결제 시장…'NH농협카드' 뛰어든다(EBN 이남석 3/31) <https://ebn.co.kr/news/view/1477874>
- ▶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연동 테스트도 마친 상태로 2021년 안에 가상자산 연동 신용카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NH농협카드는 B거래소의 자체 코인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가상자산들도 실생활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가상자산 연동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는 거래소와 카드사가 일정 부분 나눠 갖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

## □ 해외 투자자

### ○ 일론 머스크

-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로 지금부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라고 밝히며, 미국 외 지역에선 2021년 내에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따로 언급(이에 따라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는 지역은 우선 미국으로 한정될 전망)(2021. 3. 24)
- \* 출처 : “지금부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살 수 있다” 머스크 선언(국민일보 전성필 3/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23628?sid=101&from>
- CNBC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사면 미 국세청(IRS)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2021. 3. 24)
- \* 출처 : “테슬라, 비트코인으로 사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경고(한국경제 조재길 3/25),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3259755j>

▶ IRS는 이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매입 당시보다 차익을 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의 동거녀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최근 '워 님프 (전쟁의 정령)라는 디지털 그림 10점을 온라인 경매에 부쳐 20분 만에 580만 달러(약 65억원)를 벌어들임, 그라임스의 디지털 그림에는 최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 Non-Fungible Token\*\*) 기술이 적용(2021. 3. 28)

\* 출처 : [블록체인 오딧세이] 블록체인 기술로 진품 보증...NFT 예술품 시대(뉴시스 이진영 3/2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8\\_0001385764](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8_0001385764)

\*\* (NFT : Non-Fungible Token) :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작품을 암호화해 유일성을 보장(블록체인 기반 진품 보증서), 작가가 작품을 NFT로 전환해 NFT 거래소에 등록하면 작품 생성시간, 소유자, 거래 내역 등이 블록체인을 통해 모두 기록(일반적인 동영상이나 이미지, 음악 파일은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고 원본을 파악하기도 어렵지만 NFT는 디지털 자산의 생성 날짜, 소유권이나 판매, 금액 등의 정보가 모두 디지털 장부에 해당하는 블록체인에 저장됨에 따라 '진품'으로 인정 가능, 적용 영역도 게임 내 아이템, 티켓 등으로도 확대

- NFT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 차별화, 암호화폐처럼 블록체인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은 같지만 암호화폐가 서로 교환이 가능한 것과 달리 서로 대체가 불가능(예술품, 음악 및 자산 소유권의 미래를 열 기술로 NFT가 주목받는 배경)
- 암호화폐 전문지 블로코노미에 따르면 NFT 시장 규모는 2017년 3000만 달러에서 2019년 2억1000만 달러로 7배 이상 확대, 예술품 데이터 분석 플랫폼 크립토티에 따르면 NFT 토큰 기반으로 거래된 예술 작품의 총액은 2021년 3월 4일 기준으로 1억9740만 달러 (약 2220억원), 작품 수로는 10만13개

### ○ 비플(본명 마이크 윈켈만)

- 미국 크리스티 경매소에서는 작가 비플(본명 마이크 윈켈만)의 작품 '매일 :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이 6980만 달러(약 780억원)에 낙찰(2007년부터 작가가 온라인에 게시해온 사진을 모아 만든 'JPG 파일' 형식의 작품)(2021. 3. 28)

\* 출처 : [블록체인 오딧세이] 블록체인 기술로 진품 보증...NFT 예술품 시대(뉴시스 이진영 3/2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8\\_0001385764](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8_0001385764)

### ○ 잭 도시(트위터 공동 창업자)

-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작성한 최초의 트윗'에 대한 소유권은 NFT 경매를 통해 약 33억원에 낙찰(2021. 3. 22)

\* 출처 : [블록체인 오딧세이] 블록체인 기술로 진품 보증...NFT 예술품 시대(뉴시스 이진영 3/2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8\\_0001385764](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8_0001385764)

## ○ 미국프로농구 선수

- 미국프로농구(NBA) 선수들의 디지털 카드를 거래하는 'NBA 톱샷'에서는 NFT가 적용된 르브론 제임스의 10초짜리 영상이 20만8000만 달러(약 2억3500만원)에 거래(2021. 3. 28)

\* 출처 : [블록체인 오딧세이] 블록체인 기술로 진품 보증...NFT 예술품 시대(뉴시스 이진영 3/2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8\\_0001385764](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8_0001385764)